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읽는 젊음의 정열

송용구

1774년에 발표된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입니다. 괴테를 전세계에 널리 알린 베스트셀러 고전이며 ‘질풍노도’ 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힙니다.

청년 괴테가 소도시 베츨라르에서 법관 초년생으로 일할 때에 외교관이자 친구인 케스트너의 약혼녀 샤를로테 부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반한 괴테는 사랑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억누를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베츨라르의 공사서기관으로 일하던 친구 ‘예루살렘’이 상관의 부인을 사랑했으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실의에 빠져 권총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괴테는 자신의 실연 체험과 친구 예루살렘의 실연 및 권총 자살을 결합하여 소설로 가공했던 것이지요. 베르테르는 괴테와 예루살렘의 혼합형 인물입니다.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의 약혼녀 ‘로테’를 사랑하여 정열의 불꽃 속에 젊음을 불사릅니다. 그러나 본능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로테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베르트에게서 로테를 빼앗아 그녀를 결혼의 제도 속에 묶어두려는 것도 아니었지요. 베르테르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그 사랑의 정열을 솔직하게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아껴주고 싶은 사람으로,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간절함을 진실하게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로테를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자연’의 선물이라고 베르테르는 믿었으니까요. 그는 자연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타고난 시인입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베르테르의 영혼의 핏줄을 타고 그의 정신과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사랑의 불씨는 자연의 생명력에 의해 ‘정열’이라는 감정의 에너지를 받아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베르테르의 사랑은 소유욕에서 벗어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베르테르의 사랑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지요. 약혼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부도덕한 행동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괴테 자신도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이유로 대중의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대중의 이러한 가치판단을 ‘인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르테르의 사랑을 ‘부도덕’으로 매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단의 편견일 뿐이라고 괴테는 맞섰습니다.

인습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려는 베르테르의 ‘저항’은 그의 권총 자살로 표현되었지요. 그의 자살은 18세기말 유럽 청년들의 자살 신드롬을 일으켜 ‘베르테르 효과’라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괴테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르테르의 자살은 사랑의 순수함을 마음속에 보존하려는 ‘자유’의 몸짓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고전 작품들을 읽으며 우리는 ‘자살’을 선택하는 주인공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자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작가의 렌즈로 바라보면서 당대의 사회상과 주인공의 심정을 헤아려보는 것도 고전을 읽는 안목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